



병풍에 담긴 정신과 미학

요즈음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에 쌓여 있다가 제사가 있을 때나 펼쳐놓고는 하지만 예로부터 웬만큼 사는 집에서는 병풍이 생활필수품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은 병풍에 둘러싸인 삶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모란병풍(牡丹屏風)을 치고 백년해로를 맹세했고 신방을 차린 뒤에는 안방의 화조병풍(花鳥屏風)아래서 몸을 쉬고 새 생명을 양태 하였으며 그 병풍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흰 병풍을 둘러치고 그곳에서 정든 세상과 이별하였다.

그 밖에도 집안의 경조사나 나라의 특별한 대서원,

사찰, 신당, 여염집 어느 곳이나 병풍이 있었다.

사회와 글씨와 상징물이 수놓아진 병풍은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장식하는 배경과도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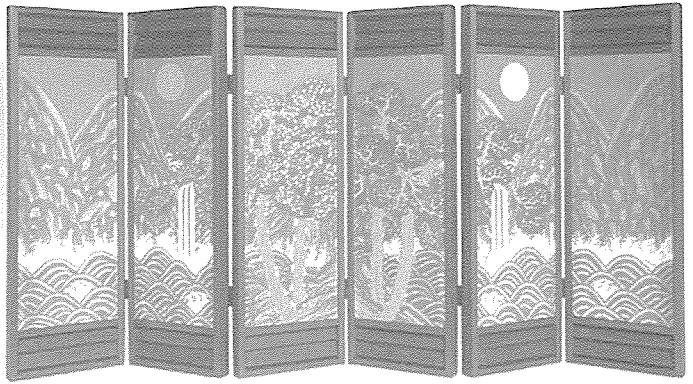
병풍은 본디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 시대의 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으니 딱히 중국의 것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기록에 따르면 중국 주나라의 천자가 높이 8척의 판에 자루가 없는 여러 개의 도끼 문양을 그려 뒷벽을 장식하였던 것이 병풍의 시초라고 하고 한나라 초기에 '제소병풍'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간편하게 접어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오늘날의 병풍의 형태와는 달리 넓은 동판이나 나무 판을 그대로 세우는 경병풍(硬屏風)이었다.

나무로 틀을 만들고 여기에 종이나 비단을 씌운 연병풍(軟屏風)이 나타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다. 그리고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날개식 병풍이 등장한 것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보다 앞선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풍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타난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대에 병풍이 신분을 상징하였다는 사실이다. '잔골과 육두품은 병풍에 손을 놓는 것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는 성골 계급만 병풍에 쓰인 '고려도경'에는 관청의 사면에 꽃을 수놓은 병풍을 쳐 놓았다는 기록과 함께 하인에게 묵화병풍을 선물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고려 시대에는 병풍이 널리 대중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까지 남아 있는 옛 병풍들은 거의 조선시대 것들이다. 멋을 알고 서화를 즐겼던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에게 병풍은 가장 사랑받는 생활용품의 하나였다.

그이들은 좋은 그림이나 글씨를 병풍으로 만들어 머리맡에 두고 즐겼으며 자수를 놓아 집안을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였다.

병풍이라는 그 본디 쓰임새는 외풍이 심한 겨울철 바람막이를 하고 공간을 나누는 가리개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몇 천 년 동안 생활용품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해졌다.

먼저 의식용은 제례 의식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주로 글씨가 씌어진 병풍들을 말한다. 글씨의 내용은 주로 '주자가훈'에서 따오거나 수신제가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래의 유교 전통에 따르자면 제례 때에는 글씨나 그림이 없는 백 병풍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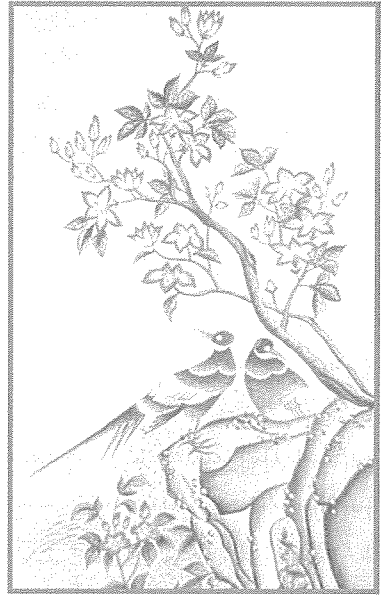
다음은 혼례용으로 화려한 꽃무늬를 그려 넣거나 수를 놓은 병풍이 있다. 이 가운데 모란병풍은 부귀영화를 상징하여 안방에 많이 세워놓았으며 백 명의 어린아이를 그려 넣은 백자동(白子童)은 자식 복을 염원하는 뜻에서 세워놓았다.

이 밖에 출생에서 흥인을 하고 손자를 보고 회혼례를 치르기까지의 행복한 한평생을 그린 평생도(平生圖) 병풍 또한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정식용으로는 신혼기간 동안 단란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는 신방용 병풍이 있고 명절 때에만 집안 어른 방에 펼쳐놓은 병풍도 있었다.

이 밖에 침실 머리맡에 치는 얇은 병풍을 머리병풍 또는 침병(枕屏)이라 하였고 공간의 모서리에 멋을 주기 위해 쳐 놓은 것을 가리개 또는 곡병(曲屏)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도 병풍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이 쓰였다. 한 주제의 그림만으로



꾸민 것은 일본에서 전해진 형식이라 하여 외장병(倭將屏)이라 불렀고 반대로 작은 그림들이나 글씨 등을 여럿 붙여서 꾸민 것을 백 납병(百納屏)이라 하였으며 수를 놓은 것은 수병, 온판으로 꾸민 것은 삼병이라 불렀다.

표현하는 주제에 따라 이름이 달랐는데, 해와 달에 김장생 문양을 곁들여 그린 일월병(日月屏), 십장 갱을 그린 장생병(長生屏), 도교에서 나오는 신선, 천도, 사슴 등을 주로 그린 신선도(神仙圖) 병풍, 역대 국왕의 옥세나 도장을 보기 좋게 구성하여 찍어놓은 도장병풍 등이 그것이다.

그 다양한 형태와 이름만 보아도 우리 조상들이 병풍이라는 소품 하나를 얼마나 다양하고 멋스럽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요즈음 많이 볼 수 있는 병풍은 조선식이 아닌 일본식 병풍이 많다. 일본식 병풍은 보통 병풍 전체 테두리에 나무로 테를 두르고 작품 소재 둘레에는 ‘주마시’라고 해서 비단 띠를 두른다.

하지만 전통적인 조선병풍은 뼈대가 되는 속 틀을 쌀 때에 왜 못이라 부르는 철 못을 사용하지 않고 끌로 흙을 파서 짜며 밑등 에도 프레임 대신 빨간색 칠을 한 짧은 발이 병풍 한 폭 당 두개씩 나오게 한 것

이 특징이다.

그리고 바탕 재료로는 쪽빛으로 물들인 명주나 한지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글씨가 씌어진 것은 회색 바탕을 쓰고 작품 테두리에 빨간색 띠를 두르고는 하였다.

병풍의 본디 구실은 가리고 나누는 데 있다. 이름 그대로 바람이나 시선을 막고 공간을 나누는 도구가 바로 병풍인 것이다.

그러나 몇 천 년 동안 우리 생활과 함께 하면서 병풍은 그 본디 구실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가림’과 ‘나눔’이 아닌 ‘드러냄’과 ‘어울림’의 도구로 우리 생활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집 안팎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풍을 둘러싸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으며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병풍에 새겨 늘 머리맡에 두고 감상하며 즐겼다.

한마디로 병풍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품성을 잘 표현해주는 가장 멋스러운 생활 소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병풍들이 현대에 와서 창고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라져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